

4. 볼리비아, 갈등의 지리

페르난도 몰리나*

2008년 8월 10일 국민소환투표에서 에보 모랄레스는 67%의 지지를 얻었다. 심지어 자치를 요구하는 몇몇 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중-원주민 진영과 반동적 과두계층을 대비시키는 단선적 시각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늘 볼리비아는 지배하기 힘든 땅이었다. 볼리비아의 특수한 지리가 온갖 갈등을 낳아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정치권력은 서부가 거머쥐고 있는 반면, 경제 권력은 동부로 이동했다. 바로 이 점이 갈등의 핵심이다. 하지만, 서부에서 동부로의 인구 이동으로 자치를 지지하는 주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인구 변화로 가까운 장래에는 상황이 변할 것 같다.

[Política/ Demografía/ Conflicto/ Autonomía/ Evo Morales/ Bolivia;
정치/ 인구/ 갈등/ 자치/ 에보 모랄레스/볼리비아]

볼리비아 사태를 해석할 때, 이를 계급갈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가 지금은 에보 모랄레스가 이끄는 원주민 대중을 이기적이고 퇴행적인 과두계층과 대비시키는 낡은 관념은 너무 조잡한 구도이고 결국 혼동을 초래할 뿐이다.

* 볼리비아 기자이자 문인으로 역사와 사상분석 전문가이다. 현재 세미나 ‘맥박(Pulso)’을 지도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와 민족주의적 좌파의 귀환(Evo Morales y el retorno de la izquierda nacionalista)』 (Eureka, La Paz, 2006), 『변화의 조짐 속에서(Bajo el signo del cambio)』 (Eureka, La Paz, 2006), 『신념 없는 개종. 사회주의운동과 민주주의 (Conversión sin fe. El MAS y la democracia)』 (Eureka, La Paz, 2007)가 있다. 이 글은 《누에바 소시에다드》 2008년 11-12월호 통권 218호에 게재되었다. [역주] 사회주의운동(MAS: Movimiento al Socialismo)은 2006년 에보 모랄레스 집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볼리비아의 여당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위기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는 위기를 더 정확히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랄레스가 67%의 지지를 얻어 승리한 8월 10일 국민소환투표가 창출한 가능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근본적인 논의이다.

쉽지 않은 볼리비아 지배

먼저 볼리비아 통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볼리비아는 남미의 3대 주요 경관을 볼 수 있는 국가이다. 먼저 안데스 경관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식민지적 공간이다. 메트로폴리스가 욕심낸 풍요로운 광물들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아마존 경관을 들 수 있다. 대단히 무더운 이 밀림 공간은 광물 채취지역은 아니지만, 마호가니, 고무, 밤 등의 값어치 있는 목재와 임산물을 채취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라쁠라따 강 경관¹⁾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중심지는 산따끄루스이며, 중요한 가스층이 발견되었다. 다른 많은 남미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볼리비아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험준한 산세와, 상이한 지리경제학적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콜롬비아의 마그달레나 강이나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강 같은) 항해 가능한 대동맥이나 (에콰도르, 페루, 칠레 해안과 같은) 넓은 해안의 부재 때문에 더 그렇다.²⁾

그 결과, 각 지역은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세계와 접속하고자 했다. 서부는 태평양을 바라보았다(이는 건국 때부터 문제가 꼬였다. 알또페루³⁾

1) [역주] 아르헨티나의 라쁠라따 강 일대와 유사한 저지대 평원 경관을 가리킨.

2) José Romero, *Bolivia, una nación en desarrollo* (1974), Los Amigos del Libro, La Paz, 1985. 2a ed.

3) [역주] 식민시대의 지역 명칭으로 오늘날의 볼리비아 영토와 대체로 일치한다.

의 바다 쪽 핵심 출구인 아리까가 페루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879~1884년의 태평양전쟁에서 칠레가 볼리비아의 남부 해안지역을 점령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반면, 볼리비아 남동부는 아순시온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통해 세계와 접촉했고, 북동부는 아마존을 통해 대서양 쪽을 향했다.

각 지역은 -따라서 각각의 지정학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요구를 국가 대계로 삼으려는 지식인들에 의해 대변되었다.⁴⁾ 물론 이 모든 일은 볼리비아 역사를 긴장으로 몰고 간 원심력을 발생시켰다. 특히, 한 지역이 부유해져서 헤게모니를 쥐려고 한다든가, 이웃 국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볼리비아 내부의 지역주의를 조장할 때 그랬다. 결국, 각 지역(사실은 볼리비아 지배층들이 각각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천연자원이나 돈을 둘러싼 갈등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는 북부와 남부의 싸움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 싸움은 1899년 라파스 시의 자유주의자들이 수끄레 시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승리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그때부터 라파스는 통치의 중심 지이자(비록 상징적 수도는 여전히 수끄레이지만) 국가 경제의 중추였다.

따라서 북부의 이해에 따라 20세기 볼리비아의 주요 결정들이 좌지우지되었다. 1904년 칠레와의 합의가 그중 하나이다. 이로써 볼리비아는 페루가 칠레에게 빼앗긴 아리까 항을 통한 무역을 보장받는 대신에 원래 볼리비아의 영토였던 광대한 태평양 연안을 포기했다. 북부는 또한 20세기의 정치적 격변의 주 무대였다. 자유주의 정권들에 대한 여러 차례 항거도 있었고, 이와 함께 급진적인 민족주의도 형성되었다가 차코 전쟁⁵⁾

4) José Luis Roca, *Fisonomía del regionalismo boliviano* (1979), Plural, La Paz, 1999, 2a edición.

에서 최초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그렇지만 민족주의자들은 이 좌절을 자신들의 건국신화로 승화시켰다). 생산적인 개입주의 국가를 창출한 1952년 4월의 민족주의혁명(Revolución Nacional)도 라파스에 우호적이어서 이 도시가 주요 경제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바로 이 지점이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비록 라파스가 20세기를 지배했지만, 지배엘리트는 바뀌어 왔다. 193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민족주의적 중산층이 차츰차츰 전통적 광업 엘리트들의 자리를 차지하더니, 마침내는 스스로가 신흥 광업 엘리트가 되었다(과두계층 소유의 주식 국유화와 관련된 정부의 홍보에 모순되지 않도록 ‘중규모 광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불렸다).

민족주의 시대에 북부가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권력의 물질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야구아 광산⁶⁾의 핵심 자원에 힘입은 바 크고, 이를 중심으로 가장 정치화된 사회단체인 광부노조가 있었다. 게다가 북부에는 시장이 있고 각종 중요 사업의 본거지가 있는 라파스가 있었다. 이 도시는 식민시대에 창건되었을 때부터 페루 리마와 볼리비아 차르카스 주를 잇는 상업 중심지 역할을 했고, 결국 오늘날 볼리비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수공예나 초기 산업 노동에 종사하는 대단히 정치화된 대중도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의 관료 대부분과 부를 축적하고 정치에 뜻을 지닌 광산주들이 라파스에 거주했다.

이 권력의 토대들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이

5) [역주] 1932~1935년 사이 파라과이와의 전쟁.

6) [역주] 뽀또시 주 북부에 위치한 광산으로 주식왕 시몬 I. 빠띠노 소유의 세계 최대 주식 광산이 있던 곳이다.

발생한 1985년에 위기를 맞았다. 첫째, 주석을 비롯한 광물 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라 토착 광업회사들이 직면한 재앙이다(그 이후 20년 동안 오로지 몇몇 초국가적 기업만 생존했다).⁷⁾ 둘째, 민족주의혁명과 함께 등장한 국가의 해체이다. 국영기업들의 비효율과 과다 부채로 나라를 휩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해체였다.

‘중규모 광업’의 실종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라빠스 엘리트들은 새로운 조류인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면서 그들에게 남은 다른 지지기둥인 비대한 국가를 상실했다. 라빠스 엘리트들이 재앙적인 국가 재정 상황을 중재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해체에 저항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국가의 축소 과정에서 북부가 권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구 지배엘리트 중 가장 수혜를 입은 이들은 그 대신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보증수표와 행정부나 민영화 기업의 고소득 직책 같은 부수적 혜택을 얻었다. 그러나 중산층은 —그리고 특히 서민층은— 국영기업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목격하고, 물가보조금 폐지에 신음하고, 노조활동을 통해 사태 추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능력을 상실했다.⁸⁾

바로 라빠스의 이 몰락한 중산층 사이에서 ‘행복한 90년대(happy 90’s)’ 말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발효되기 시작했고, 가스층의 발견으로 완전고용과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재정적으로 보장할 사회국가(Estado social)의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반감이 커져갔다.

중산층과 서민층, 이 계층의 아이마라 출신 혹은 인디오주의 성향이

7) Irving Alcaraz, *Bolivia, hora cero*, s.e., La Paz, 1999.

8)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Joseph Stiglitz, *El malestar en la globalización*, Suma de Letras, Madrid, 2003.

강한 지식인, 라빠스 시와 엘알또 시의 가난한 지역에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이 이데올로기는 사회 전체가 자원 채취에 몰두하기를 원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개입주의적이고 확대된 국가를 요구한다. 이 이데올로기가 서부의 반란자들을 이끌었고, 이들 중에 에보 모랄레스가 지휘하는 코카 재배 농민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랄레스 대통령의 근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회 지지층은 농민이 아니라 라빠스와 엘알또의 투쟁적인 주민들이다.

국가주의 부활이 가져온 주요 정치적 효과는 모랄레스와 그의 당인 사회주의운동이 연이은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에는 2005년 12월 권력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운동은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축으로 삼았고, 이를 무기로 이전 정부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이미지와 신화를 구축했다.

그러나 모랄레스 정권의 재분배 약속은 충돌하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일말의 희망마저 배제해 버렸다(이 싸움은 스스로를 법치와 동일시하려는 예전의 ‘민주주의’ 당국자들이 유발했다). 모랄레스는 계속해서 노선을 천명한다. 특히 볼리비아의 동부와 남부에 반대하는 노선이다.

동시에 국가주의는 ‘다수’(다수이자 물론 국가주의를 지탱하는 기층민들이기도 하다)를 위한 재분배를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혜택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수십 년 간 세계가 경험한 문화적 변화로 인해(이 글에서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하겠다), ‘다수’는 이제 20세기 초의 ‘민중’도 아니고, 1950년대의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족적 계급들의 동맹’도 아니고, 1970년대의 ‘민중민주적 블록’도 아니다. 오늘날 다수는 종족적이고, 그들의 적과 문화적·인종적 차이를 지니

고 있다. 이 때문에 볼리비아 영토에 대단히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다수이다. 즉, 아이마라인과 케추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고지대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다수는 북부의 다수이다.

그래서 모랄레스는 ‘라빠스의 지배’라는 맥락에서는 새로운 영웅이 된 셈이다(그 증거로 모랄레스는 수끄레가 1세기 전부터 요구한 정부 이전을 검토하는 것조차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부 이전 문제는 제헌의회에서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⁹⁾ 모랄레스와 사회주의운동은 20세기 초의 자유주의 기획보다도 더 안데스중심주의적 특징을 띠고 있는 것이다.

동부를 향한 행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라빠스의 빈곤화를 결정지은 동일한 사건들이 산따끄루스를 비롯해 볼리비아 동부에 위치한 ‘반달지대’의 여러 주¹⁰⁾에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 1952년 이전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기획하고 민족주의혁명으로 절정에 달한 동부를 향한 행진으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분리되어 있던 동부와 서부가 이미 오래 전에 연결되었다. 이 덕분에 동부는 농목축산품을 판매할 시장을 얻었다. 또한, 산따끄루스에는 석유산업도 들어섰다. 볼리비아 평원지대는 괄목상대하게 발전했다.

9) [역주] 볼리비아는 1825년 독립을 선언했고, 이듬해 수끄레를 수도로 삼았다. 수끄레는 아직도 볼리비아의 수도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계속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1898~1899년 내전에서 북부의 승리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라빠스로 이전하면서, 라빠스가 사실상 수도 역할을 했다. 다만, 2006년 구성된 제헌의회는 수끄레에 있다.

10) [역주] 반달지대는 볼리비아 동부와 남부의 팜파, 베니, 산따끄루스, 파리하 4개 주를 가리킨다.

그러나 산따끄루스는 1985년 광업 위기 때부터 비로소 현재 누리고 있는 중요성을 획득했다. 광업 위기로 수출이 급감하고 외화에 굶주리게 되면서 볼리비아가 산따끄루스의 집약농업에 희망을 거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¹¹⁾ 세계은행은 사악한 ‘동부 저지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약농업을 촉진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재앙을 야기한 것은 차치하고, 이 지역을 안데스공동체를 겨냥한 식용유 수출지대로 만들어버렸다.

비록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소규모이고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볼리비아 사정을 감안하면 오늘날 산따끄루스는 현대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농산업을 소유하고 있다. 가장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양호한 인적자원 지표를 보여준다. 산따끄루스는 북부의 광업 엘리트보다 채취 의존도가 낮은 농산업 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다.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계급인 것이다. 이 점이 농산업 엘리트에게 지역주민에 대한 지도력을 부여했으며, 이들은 시민위원회(지역단체들의 연합체)를 통해 지도력을 행사했다. 산따끄루스의 사회질서는 볼리비아 다른 지역에 비해 굳건한 편이다. 지도층이 대단히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그 덕분에 일정 부분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또 산따끄루스 지역의 경제성장 때문에 전국의 돈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신적으로- 동부로 이주했다. 그래서 산따끄루스와 안데스중심주의 간의 갈등은 원주민 ‘다중’과 경제적·지역적·외국지향적 엘리트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에보 모랄레스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 계층의 반대는 지역적

11) 볼리비아의 9개 주 중에서 산따끄루스만 비옥한 토지 덕분에 집약농업에 적합하다.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Rolando Morales, *Bolivia: política económica, geografía y pobreza*,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La Paz, 2000.

토대가 없었다면 그리 중요성을 띠지 못했을 것이다. 반 에보주의(antievismo)에 실체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지역 정체성이요, 지역 주민의 집단적 움직임이다.

그러나 산따끄루스가 볼리비아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는 있다 해도, 볼리비아의 구조적 한계와 결합을 공유하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겠다. 또한 서부의 영향력에도 노출되어 있고, 라빠스 일대 고원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전 국가적인 낙후의 무게도 감당해야 한다. 뿌나¹²⁾라는 생태계에 해당하는 고원지대는 무엇보다도 대단히 근면하고 필사적인 원주민 이주민을 송출하고 있고, 이들은 동부에 정착하고 재분배 투쟁을 지지함으로써 산따끄루스 엘리트들이 애써 구축한 질서를 침식하고 있다.

자치를 원하는 산따끄루스의 정서는 어찌 보면 고원지대의 짐에서, 즉 고원지대의 빈곤과 주민과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전통에서 자유로워질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자치안은 탈중앙집권주의 주장 이상의 무엇이다. 즉, 보통 서부 비전의 산물인 사회와 정반대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의 창출을 신성시하는 -부의 창출 과정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를 거의 무시하는- 사회, 외국인투자를 대대적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는 사회, 숨 막히는 정치 질서를 지닌 사회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옹호하는 안데스중심주의적이고 완전한 재분배 국가라는 유토피아에 필적하는 유토피아를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획이 환상이라는 가장 훌륭한 증거는 자신들이 응답해야 할 유일한 '원주민 문제'는 수도 얼마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하찮은 저지대 토착원주민 문

12) [역주] 메마르고 척박한 고원지대를 일컫는 말.

제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동부와 남부 인구의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서부 원주민 이주민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10일의 정치적-지리적 의미

2008년 8월 10일 국민투표에서 에보 모랄레스의 승리는 전국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모랄레스가 67%의 지지를 얻었다), 산따끄루스(40%), 베니(43%), 따리하(50%), 뽀도(52%) 등의 동부 주에서 모랄레스가 의미심장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했다. 살바도르 로메로가 '질서표'라고 부르는 표가 위기의 시대를 비롯해 언제나 다수인 지역에서 모랄레스가 빼어난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다.

민족주의혁명 직전인 1951년 민족혁명운동(MNR: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이 최초로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빅토르 빠스 에스텐소로의 당은 43%의 지지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수치는 에보 모랄레스가 얻은 지지표에 비하면 낮은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당시의 질서당은 -사회주의연방공화국당(PURS: Partido Unión Republicana Socialista)- 뽀도, 따리하, 베니 주에서는 50% 이상의 표를 획득함으로써 헤게모니를 상실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지금보다도 훨씬 전통적인 분위기였던 추끼사까 주에서 42%로 승리를 거두었고,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산따끄루스 주에서도 37%로 승리했다. 결국, 1951년의 신화적인 선거는 -비록 좌파의 명백한 승리였지만- 사회주의운동의 승리보다 덜 압도적인 것이었다. 더 명확히 말하자면, 1951년의 승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서부의 승리'인 셈이었다.

1980년 선거에서 민중민주연합(UDP: Unión Democrática y Popular)은 -

좌파 연합으로 서부 주들에서는 50% 이상, 라빠스에서는 60%, 꼬차밤바에서는 이보다 조금 못 미친 표를 얻어 승리했다 -빠노, 베니, 산따끄루스, 파리하 주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 4개 주에서 우파 정당들은 66%에서 75%의 표를 획득했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주의운동이 출현하기 전까지 좌파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선거였으며, 이런 결과가 빚어지자 군부정권이 등장했다. 1982년 군부통치가 종식되자, 민중민주연합은 새로 선거를 소집하지 않고 1980년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와 함께 볼리비아를 통치했다. 만약 선거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주의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다(물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85년 민중민주연합이 권력을 놓았을 때, 좌파는 패배했다. 짐작이 되겠지만, 동부에서는 훨씬 더 크게 패배했다.

북부는 -그리고 특히 볼리비아의 실질적 수도인 라빠스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개혁적인 정치 성향을 견지한 반면, 더 보수적인 중부지방은 이에 대립했다. 살바도르 로메로가 ‘항의표’라고 이름을 붙인 좌파 지지표는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고지대에서 주로 나온다. 특히 좌파가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두어 온 라빠스에서 비롯된 표이다(물론 좌파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진부하게 여겨질 때는 라빠스에서도 패할 때가 있었다).

라빠스는 바다와 더 가까이 있고, 그래서 세계와 더 가깝다. 항상 무역, 즉 외국과의 교역에 의존했고, 볼리비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앞선 도시, 가장 전위적인 도시였다. 게다가, 항의표는 라빠스 일대의 원주민들과 이들의 낮은 사회경제적·문화적 수준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2008년 국민투표 후에- 서부 대 동부라는 선거 도식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항의표는 반달지대인 동부와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변화의 주된 이유는 인구 구성이다. 반달지대 내부의 급격한 인구성장과 함께 재분배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었다. 인구 증가의 주요인이 서부로부터의 원주민 이주이니, 이주민들의 이데올로기가 그런 현상을 빚은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서부와 동부의 차이는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2006년 선거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이 반달지대에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가정들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8월의 선거 결과는 반달지대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지대 주민의 거의 절반이 전통적인 표심과는 다른 표심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주의운동에 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반달지대의 사회통념이 거부하는 라빠스의 대통령에게 -어쨌든 서부의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이런 몸짓은 동부의 사회 분위기와는 단절이고, (비록 지금은 에보 모랄레스가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차 사회주의운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 아마 더욱 거세질 것이다.

동부와 남부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는 크나큰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전통적인 주역들은 이따금 부정과 거부가 혼합된 형태로 저항하고 있다. 가령, 인종주의적 광분이 조장되기도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이주민들을 출신지로 돌려보내고,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하려는 반동적인 열망에 의거한 정치를 시도한다. 이 모든 행동은 당연히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볼리비아 사회의 발전과 점증하는 사회적 복합성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도 본질적으로 반서부적인 성향을 지닌 반달지대의 정치가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압력이 증가할수록 계급

투쟁은 격해질 것이다. 서부 출신 세력들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적·이데올로기적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그룹과 지도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가령, 현재의 좌파보다 더 굳건한 좌파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볼리비아에서 가장 부유한 이 지역은 장차 국가를 이끌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서양 쪽을 바라보는 지역들, 즉 귀중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업과 무역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의 장구한 지배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라빠스의 필연적인 쇠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잘하면 볼리비아의 지정학적 재균형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달지대가 볼리비아를 선도하기 전에 먼저 심각한 인종적·문화적 혼혈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점점 늘어나는 서부 출신 주민을 껴안고 통합해야 한다. 과연 이 과정에서 너무도 불균등했던 서부의 혼혈 과정과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성공의 열쇠이고, 반달지대가 지속적인 리더십을 창출한 가능성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 변화는 아마도 다양한 낭만적 운동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과거 지향적인 시선,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킨 전통적인 농업 질서를 지향하는 시선에 입각한 운동들 말이다. ‘깜바 민족’¹³⁾은 가장 극단적인 운동의 한 예일 뿐이다. 잘못 이해된 자치는 일종의 현실도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급변하는 모든 사회가 겪는 이러한 파괴적 시위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정치적 불안정의 근원이 될 것이다.

13) 산따끄루스의 토착문화(소위 ‘깜바 문화’)를 예찬하는 지역주의 운동으로 연방주의를 옹호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반달지대 내부의 계급투쟁의 격화로 께마도 궁¹⁴⁾에 대한 공세가 적어도 몇 년 간 완화될 수 있다. 에보 모랄레스가 북부의 지배, 즉 그의 안데스중심주의 기획에 의거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한동안이라도 구축할 수 있을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질서가 몇 년은 지속될 수 있어도 결국 진정한 역사적 미래는 결여된 질서이다. 동부를 향한 행진은 이미 벌어졌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수많은 서부 이주자들의 발을 통해 매일같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구학적·경제적·문화적 현상이어서 나라 전체를 완전히 들쭉셨다.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산따끄루스 자신이 겪고 있다. 산따끄루스는 이미 볼리비아 크리오요주의(criollismo)¹⁵⁾의 강력한 보루가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아닐 것이다.

(우석균 번역)

14) [역주] 대통령 궁.

15) [역주]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 후손을 크리오요라고 한다. 원주민이 많은 나라에서 크리오요주의는 보통 백인우월주의 성향을 띤다.